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강림하심’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강림하심

¹⁶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뽕뽕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
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
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
라 ¹⁷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기슭에 서 있는데 ¹⁸시
내 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
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
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 가마
연기 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
게 진동하며 ¹⁹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
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²⁰
여호와께서 시내 산 곧 그 산꼭
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
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출19:16-20)

말씀에는 여리고 성이 무너질
때나 기드온의 군대가 미디안과
아말렉족을 무찌를 때 나팔을
불었다. 나팔 소리가 이런 효력
을 가지는 것은 그것이 천국을

통해 내려오는 하나님의 진리를
표상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것은 선한 사람을 완전하게 하
고 악한 사람을 파멸시키는 진
리이다. 그것이 선한 사람을 완
전하게 만드는 까닭은 선한 사
람은 진리 안에 있는 선의 신성
을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반면에
악한 사람을 파멸시키는 것은
악한 사람은 진리 안에 들어 있
는 선의 신성을 받아들이지 않
기 때문이다. (AC.8815:2)

※ AC(Arcana Coelestia, 천국의
비밀) 위 8815번 글 2번 항에 대
한 Clowes 영역 및 Potts 개정본
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Truth Divine from heaven was
also represented by the seven t
rumpets with which the seven p
riests sounded before the ark o
r before Jehovah, when the wall
s of the city Jericho fell (Josh.
6); also by the trumpets with w
hich the three hundred men who
were with Gideon sounded roun
d about the camp of Midian, A
malek, and the sons of the east
(Judg. 7). The reason why the t
rumpets produced this effect wa*

출19:16-20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강림하심’

s that they represented the truth Divine through the heavens, which is such that it perfects the good, but destroys the evil; the reason why it perfects the good is that these receive the Divine good which is in the truth; but that it destroys the evil is because these do not receive the Divine good which is in it.

이는 오늘 본문 16절,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뽕뽕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에 관한 주석 중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And the voice of a trumpet exceeding strong)에 대한 내용의 일부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시내 산에 강림하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스스로를 성결하게 하고 옷을 빨라 명령하셨습니다. 성결하지 않으면 주님과 의 결합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성결하게 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을 되새기는 의미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

리겠습니다. 성결하게 되는 것은 진리에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기적인 행동을 자제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자신을 성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또 옷을 빨라고 하십니다. 옷을 빨는 것은 우리 생각과 행동 안에 있는 거짓들을 몰아내는 일입니다. 우리는 모두 나는 진실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스스로 진실하다고 생각하는 말이나 행동 안에 사실은 진실하지 않은 것들이 많이 섞여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진실한 것이고 어떤 것이 진실하지 않은 것인가요? 자기 이익만 추구할 때 그것은 진실하지 않은 것입니다. 겉으로는 공의를 생각하고 이웃을 생각하는 것처럼 하면서 속으로는 자기 이익을 추구한다면 진실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 신앙인들이 완전히 자기 이익만을 생각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웃을 사랑한다 하면서 은근히 자기를 내세우거나 또는 사적 이익을 도모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순수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은 자기 자신의 생각과 의도를 살피면서 그 속에 있는 순수하지 않은 것들을 버리라고 하십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강림하심’

니다. 그것이 옷을 빠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속에 겹겹이 쌓인 악으로부터 점점 분리가 됩니다.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안에는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유전적 악들이 쌓여 있어 우리와 한 몸 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부터 분리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성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은 우리 내면에 있는 시내 산으로 오십니다. 16절에서는 그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¹⁶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뼉뼉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셋째 날 아침’이라고 합니다. 셋째 날의 삼(3)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셋째 날’은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완전하게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충분히 성결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신앙인들이 이렇게 흠 없이 순결한 상태가 되었을 때 주님은 그들에게 사랑과 선을 보내 주시며, 그렇게 해서 당신의 강림을 준비하십니다. 주님은 우리 내면의 사랑 가운데

로 오시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상태를 본문에서는 ‘아침’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므로 아침은 우리가 충분히 성결해져서 주님으로부터 사랑과 선이 흘러 들어오는 상태입니다. ‘셋째 날 아침’이라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왜 그런지 몽클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실 우리 마음을 들여다보면 사막과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물도 흐르지 않고, 나무도 없고, 경우에 따라서는 가시덤불 같은 것이 즐비한 그런 사막 말입니다. 사랑도 없고 진실한 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이 옥토로 바뀌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 그 안으로 선을 넣어주시고 진리를 넣어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우리가 나름대로 성결하게 되려고 노력할 때 주께서 그 마음 가운데로 사랑을 넣어주신다고 합니다. 사막과 같은 마음속에 아침 햇살이 비치듯이 주님으로부터 선한 것이 흘러들어오는 그 광경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참으로 장엄하고 감동적인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게 주님으로부터 선을 받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는 어렵지 않게 악을 끊을 수 있습니다. 이제까지 한 가지

출19:16-20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강림하심’

악습을 끊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흘렀고 또한 고난이 있었습니까? 저는 영적으로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 그렇게 힘이 드는지 몰랐습니다. 나는 온전히 잊어버리고, 오직 이웃을 위해 선을 행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을 넣어주셔야 합니다. 바로 그 상태가 **‘셋째 날 아침’**입니다.

그런데 그 상태에서 **‘우레와 번개와 뽕뽕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라는 표현이 이어집니다. 여기서 구름은 인간의 언어로 된 말씀을 뜻합니다. 말씀을 구름으로 표현하는 이유는, 그것이 주님에게서 직접 나오는 진리가 아니고 인간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 수위가 조절된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으로부터 직접 나오는 진리는 그 빛이 너무나 밝아서 인간이 감당할 수도 없으며, 그러므로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마치 구름이 빛을 가리는 것처럼 언어라는 수단을 통해 진리의 밝기를 조절하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늘 대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글자로 된 말씀은 주님에게서 직접 나오는 진리에

비하면 지극히 거칠고 둔탁한 진리입니다. 본문에서 말씀을 그냥 구름이라고 하지 않고 **‘뽕뽕한 구름’**이라고 표현한 것은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구름이 뽕뽕하다는 것은 그만큼 어둡다는 것입니다. **‘산 위에 구름이 있다’**는 것은 신앙인들이 말씀의 진리를 선으로부터 이해한다는 뜻입니다. 산은 선의 상태를 의미하고 구름은 말씀을 의미하니까요. 말씀을 선으로부터 이해하는 것과 진리로 이해하는 것은 많이 다릅니다.

진리로 말씀을 이해하는 것은 말씀을 이성을 통해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선으로 말씀을 이해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사랑, 또는 의지로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선을 통해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그대로 살아낼 것인가에 모든 관심과 애정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성으로 진리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그들 가운데도 말씀에 따라 살려는 뜻을 가진 사람이 있겠지만, 그러나 그 밖에 여러 가지 생각들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이를테면 지적 욕구라든가 호기심, 그 밖에 여러 가지 목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강림하심’

적들이 섞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으로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주님의 강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상태는 그래야 합니다. 주님께서 보내 주시는 선을 통해 말씀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상태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전에 진리 가운데 있을 때와는 전혀 다른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우레와 번개’가 치기 시작했습니다. ‘우레와 번개’가 치는 것은 주님으로부터 계시가 있다는 뜻입니다. 주님의 계시란 주님으로부터 흘러들어오는 진리를 말합니다. 주님으로부터 오는 진리이기 때문에 그 속에는 선이 들어있습니다. 본문에서 그냥 우레라 하지 않고 ‘우레와 번개’라고 표현한 것은 그때문입니다. 우레는 진리이고, 번개는 진리 안에 있는 선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레와 번개와 짹짹 구름이 산 위에 있고’는 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말씀을 통해 진리를 받아들이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어서 나팔 소리가 크게 들렸다 하는데 나팔 소리 역시 우레 및 번개의 의미와 같습니다. 왜냐하면 나팔 소에서 소리는 진리를 뜻하고, 나팔은 진리 안에 있는 선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나팔은 선이 있는 진리이기 때문에 능력이 있습니다. 모든 능력은 선 또는 사랑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진리만 있는 교회는 화합할 수 없고 부흥할 수도 없습니다. 선이 있는 진리가 있어야만 합니다. 나팔은 이와 같이 선이 있는 진리이며 능력이 있는 진리를 뜻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때 나팔을 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기드온의 군대가 미디안과 싸울 때도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래서 나팔 소리가 들린다는 것은 우레 및 번개와 마찬가지로 주님으로부터 선이 있는 진리를 받아들이는 상태를 말합니다.

계속되는 말씀에서는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진리를 받아들일 때 온몸과 영이 떨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떨림을 성문서에서는 거룩한 전율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주님께 의해 영적으로 새롭게 되는 사람만이 느끼는 전율이기 때문입니다. 그 전율은 어떤 것일까요? 사실 이 전율은 주님으로부터 진리가 흘러

출19:16-20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강림하심’

들어와 영이 새롭게 되는 경험을 한 사람이 아니면 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 떨림은 영의 떨림이며, 그 안에는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진정한 회개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말로 하는 회개와 감사, 기쁨이 아니고요, 영의 떨림으로 드리는 감사와 회개, 그리고 기쁨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환상 가운데 주님을 보았던 다니엘이 **‘죽은 자처럼 되어 떨었다’** 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 역시 단순한 두려움으로 인한 몸의 떨림이 아니라 주님에 대한 경외심으로 인한 영의 떨림이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경외한다 하면서도 잠깐 사이 수없이 주님께 등을 돌리고 거리낌 없이 죄를 짓습니다. 그것이 주님을 경외하는 것일까요? 다니엘의 떨림 가운데는 감사와 기쁨 및 회개, 그리고 진정한 경외심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전에 저질렀던 죄를 다시는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그런 경외심입니다. 자기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손바닥 뒤집듯이 수시로 마음을 바꾸는 그러한 경외가 아닌 것입니다. 백성들이 그렇게 떨고 있을 때 17절,

¹⁷**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

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기슭에 서 있는데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의 영어 성경 표현은 **‘모세가 백성들로 하여금 진에서 나와 하나님을 만나게 했다’**입니다. 모세가 백성들을 거느리고 나온 게 아니고요, 모세가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나도록 준비시켰다는 뜻입니다. 모세는 누굽니까? 아시는 것처럼 진리를 표상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진리의 능력이 강림하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신앙인들을 준비시켰다는 뜻입니다. 그 준비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자신을 성결하게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옷을 빠는 것입니다. 그러한 준비가 진리의 능력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교우님들 가운데는 시험 중에 진리의 능력을 의심했던 적이 있으십니까? 내가 이렇게 매일같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데 왜 시험이 끝나지 않는가? 진리의 능력이 과연 있기는 한 건가? 의심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내가 온전히 주님과 이웃을 위한 마음으로 말씀을 가까이했는지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과 의 연결은 인애(*charity*)를 통해 이루어지며, 그리고 그때 주님으로부터 선이 있는 진리가 흘러들어오기 때문입니다. (TCR.457)

※ TCR(*True Christian Religion*, 참된 기독교) 위 457번 글에 대한 *Ager* 영역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8. *The conjunction of love to God and love toward the neighbor*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결합

[2] *How conjunction is effected shall be told in a few words.* 이 결합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With every man God flows into man's knowledge of him with acknowledgment of him, and at the same time flows in with his love towards men.*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가 가진 하나님에 관한 지식 안으로 하나님을 향한 그의 시인(*acknowledgment*)과 함께, 그리고 동시에 사람들을 향하신 그분의 사랑과 함께 흘러들어오

십니다. *The man who receives in the former way only, and not in the latter, receives that influx in the understanding and not in the will, and remains in knowledge of God without an interior acknowledgment of God; and his state is like that of a garden in winter.* 이전 방식(예배)으로만 받아들이며, 나중 방식(선한 생활)으로는 아닌 사람은 그 인플럭스(*influx*)를 의지(*will*) 아닌 이해(*understanding*, 이성)로만 받으며, 하나님에 대한 내적 시인은 없는, 단지 하나님에 관한 지식 안에만 있게 되는데, 이런 그의 상태는 마치 한겨울 마른 꽃밭 같은 상태입니다. *But the man who receives in both ways, receives the influx in the will and from that in the understanding, thus in the whole mind, and he has an interior acknowledgment of God which vivifies in him the knowledges of God; and his state is like that of a garden in spring.* 그러나 둘 다 받아들이는 사람은 인플럭스를 의지와, 그리고 의지에서 비롯된 이해로, 그래서 온 마음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내적으로도

출19:16-20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강림하심’

시인하는데 이는 그에게 있는 하나님에 관한 지식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며, 이런 그의 상태는 비유하자면 마치 봄날 꽃밭 같은 상태입니다.

[3] *Conjunction is effected by charity, because God loves every man, and as He cannot do good to man immediately, but only mediately through men, he inspires men with his own love, as he inspires parents with love for their children; and the man who receives that love has conjunction with God, and from God's love loves his neighbor; and in him God's love is within man's love towards the neighbor, and produces in him the will and the ability.* 결합은 체어리티로 이루어지는데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선을 행하실 때 직접은 안 되고, 오직 사람들을 통한 간접적으로만 하실 수 있기에, 하나님 자신의 사랑으로 사람들을 격려, 그들이 부모로서 자기들의 자녀를 사랑할 수 있도록 하시는데요, 이런 사랑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하나님과 결

합하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또한 자기 이웃을 사랑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 사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의 사랑 안에 있게 되고, 그의 안에 의지와 힘을 낳습니다.

※ 즉 이웃 사랑은 그 안에 주님 사랑이 들어있는, 다시 말씀드리면, 이웃 사랑은 주님 사랑을 담은 그릇이라는 말씀이며, 실현된, 나타난 주님 사랑이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표상되는 신앙인들은 바로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선이 있는 진리, 능력이 있는 진리를 통해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에는 그들이 ‘산기슭에서 있는데’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산은 주님에 대한 사랑을 나타냅니다. 산은 그렇게 고결한 뜻이 있기에 고대인들은 늘 산 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이 산기슭에서 있다’는 것은 그들이 주님에 대한 사랑과는 거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강림하심’

리가 멀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대단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지금까지 알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은 영적 교회에 속한 사람들로 많이 거듭나서 선의 상태에 이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시내 광야에 도착해 시내 산 앞에 장막을 친 것이나 여호와와 강림을 기다리면서 셋째 날 아침을 맞았다는 것이 모두 그런 뜻이었습니다. 선의 상태 가운데 있다는 것은 그들이 주님과 이웃을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지금 새삼스럽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에 대한 사랑과는 거리가 멀다고 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 교회에 속한 사람들을 표상했지만, 이 구절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말 그대로 이스라엘 민족 자체를 나타내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말씀에 나오는 이스라엘 민족은 외적으로는 주님의 교회를 표상하는 사람들이었지만 내적으로는 지극히 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하나님의 선민이라 생각하고, 그러므로 세

상의 모든 나라 사람으로부터 추앙받아야 한다 믿었습니다. 또한 누구보다도 물질적으로 부유하게 살아야 한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 보기를 비천한 자들이나 짐승 바라보듯 내려다봤습니다. 그렇게 교만하고 탐욕스러운 사람들에게 주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 있을 리 없습니다. 그래서 17절에서는 그들을 가리켜 ‘산기슭에 서 있다’ 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모든 의문이 풀리는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 교회의 사람들을 표상한다면 말씀에서 일관되게 그런 의미로 쓰여야 하는데, 갑자기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오직 세속적인 것만 탐하는 사람들, 즉 유대인들을 뜻한다고 하면 말씀을 읽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주님은 말씀을 왜 그렇게 기록하셨을까요? 저도 처음에는 말씀이 왜 이렇게 일관성이 없는가, 이러면 설교를 어떻게 준비하나 하는 원망 비슷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문득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의미를 두 가지로 나타내시는 이유는, 어쩌면 교회 안에도 두 가지 부류의 교인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

출19:16-20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강림하심’

시려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단순히 교회를 표상하는 사람이 있고, 진짜 영적 교회에 속한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말씀과 속뜻을 통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목적지가 다 같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니 저 자신도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님은 내적으로 경건하지 않은 목회자라도 그의 외적 경건함 가운데로 오셔서 그와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그를 통해 여러 사람을 구원하시려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목회자 개인에게는 매우 슬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직분을 가진 분들로부터 평범한 교인들에 이르기까지 각자의 내면을 살피면서 반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주님께서 그러한 취지로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표현을 두 가지로 사용하셨다고 이해합니다. 어떤 구절에서는 영적 교회에 속한 사람들로 사용하셨구요, 어떤 구절에서는 단순히 교회의 표상으로만 사용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기슭에 서 있는데 드디어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 강림하셨습니다. 그 모습을 18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18 시내 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 가마 연기 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시내 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시내 산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선의 상태를 나타냅니다. 선의 상태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선한 의지가 동(動)해서 기쁨으로 선을 행하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연기’는 선의 상태로 들어오기 전의 상태, 진리의 상태를 나타냅니다. 진리의 상태는 어떤 것입니까? 진리를 행하기는 하는데 기쁨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것이 진리이니 이대로 행하라 하시니 마지못해 선을 행하는 것이 진리의 상태입니다. 그렇기에 진리의 상태는 선의 상태에 비교하면 연기처럼 어두운 상태입니다. 따라서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다’는 것은 이제 신앙인들이 진리의 상태에서 막 선의 상태로 올라간 것을 나타내고요, 그렇기에 아직 진리의 상태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것을 뜻하는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강림하심’

것으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시내 산만 보이지 않고, 거기에 연기가 자욱하게 덮여 있는 것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강림하셨습니다. 여기서 불은 사랑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불 가운데서 강림하시는 것은 주께서 우리들의 사랑 안으로 임재하시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옹기 가마 연기 같은 것이 떠올랐다고 합니다. 조금 전에 연기는 거듭나는 신앙인들이 선의 상태로 들어오기 전의 상태, 즉 진리의 상태를 뜻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 옹기 가마 연기는 그것보다 더 뜨겁고 어두운 연기입니다. 그래서 옹기 가마와 연기는 다시 영적 교회 사람들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즉 옹기 가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탐욕을 나타냅니다. 그들의 탐욕이 옹기 가마처럼 뜨겁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옹기 가마 연기 같은 것이 떠오르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탐심에서 비롯된 거짓을 나타냅니다. 그렇게 주님과 이웃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고 오직 탐심만 가득한 사람들이라도 교회를 위해 쓰시고자 하시면 주님은 그들에게 강림하십니다. 어디에

강림을 하십니까? 그들은 내적인 것이 없기에 외적 경건함 속으로 강림하십니다. 성결하지 않은 사람에게서는 강림하시지 않는다고 했는데, 주님은 어떻게 그런 사람에게 임재하실 수가 있을까요? 그들의 내면이 성결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은 강림하실 때 그들의 내면을 베일(장막)로 덮으신다고 합니다. (AC.8788). 그 이유는 내면에 있는 악들이 외적 경건함 속으로 흘러나오지 않도록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임재를 위해 악한 사람들을 준비시키시는 방법은, 그들을 내적으로 변화시킬 수는 없기에 내면, 즉 속 사람을 장막으로 덮으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 랍비 같은 사람들은 외적으로는 대단히 경건한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경건을 교회의 표상을 위해 쓰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인류를 구원하실 목적을 위해 쓰신 것이지, 그들 자신의 구원을 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내적으로는 주님과 결합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온 산이 크게 진동했다’고 했는데, 산은 우리 내면에 있

출19:16-20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강림하심’

는 주님에 대한 사랑을 뜻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온 산이 진동하는 것은 주님이 강림하실 때 그 사랑이 크게 동한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크게 떨린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 내면 깊은 곳에 있는 주님에 대한 사랑이 떨리는 것입니다. 주님에 대한 경외심으로 떨리고, 이전에 주님 앞에 저지른 잘못에 대한 회개로 떨리고, 감사와 기쁨으로 떨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19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19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나팔 소리는 주님으로부터 선을 동반한 진리가 흘러 들어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말하는 것 역시 내면으로 진리가 유입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팔 소리가 들리는 것과 모세가 말하는 것은 모두 진리의 유입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는 무슨 뜻일까요? 그것에 대해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의 내면은 가장 깊은 내면(*in*

most)이 있고, 중간에 속 사람(*internal*)이 있고, 가장 바깥쪽에 겉 사람(*external*)이 있습니다. 주님으로부터 오는 진리는 가장 깊은 내면으로 들어와 속 사람을 거쳐 겉 사람 안으로 흘러 들어갑니다. 그런데 진리가 내면 깊은 곳에 있을 때는 그 진리의 울림(소리)이 아주 작고, 평온하고, 그러나 명확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면 깊은 곳에서 속 사람을 통해 겉 사람 속으로 흘러들어올 때, 진리의 교란이 생기고, 소란해 진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내면 깊은 곳은 주님에 대한 사랑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아주 순수한 곳이며 그에 비해 속 사람과 겉 사람은 상대적으로 그렇게 순수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리가 깊은 내면에 있을 때는 마치 빛이 순수한 공기를 통과할 때처럼 굴절이 없고, 그러므로 순수한 상태로 유지가 됩니다. 그러나 속 사람과 겉 사람으로 내려올수록 굴절이 됩니다. 굴절이 된다는 것은 왜곡되고 과장되게 증폭이 된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진리가 내면 깊은 곳으로부터 속 사람을 거쳐 겉 사람으로 흘러들어올 때 여러 가지 불순한 애정들을 만납니다. 그러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강림하심’

다 보면 순수한 진리에 인간의 생각이 더해집니다. 그렇게 해서 진리는 조금씩 왜곡되고 불필요하게 증폭이 됩니다. 그것을 말씀에서는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지는 것’으로 표현했습니다. 주변을 돌아봐도 그렇습니다. 사랑이 많은 사람에게 진리가 들어가면 진리에 대해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선부르게 아는 사람들은 말을 많이 합니다. 그것처럼 진리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내려올수록 마치 나팔 소리 커지듯 소란스러워지고 약간씩 왜곡됩니다.

이어서 모세가 말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대답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대답했다는 것은 우리 내면으로 유입되는 모세의 말, 즉 진리는 모두 주님으로부터 온다는 뜻입니다. 20절,

20여호와께서 시내 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강림하시는 여호와는 선 자체이신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모세는 진리를 뜻합니다. 따라서 ‘여호와께서 강림하시고 모세가 올라가

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 안으로 오실 때 그때 우리 안에 있던 진리와 선이 하나가 되는 것을 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주님께서 우리 내면의 시내 산에 오실 때 우리 안에 있는 진리와 선이 하나가 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말씀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은 일반적으로는 영적 교회 또는 영적 교회에 속한 사람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영적 교회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글자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나타내는 경우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러 혼란을 느끼는 분도 계셨을 것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느 민족보다 교만하고, 세속적이며, 이기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그들을 교회의 표상으로 쓰셨습니다. 왜 그러셨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들은 그것을 간절히 원했고, 주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을 믿지도, 사랑하지

출19:16-20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강림하심’

도 앎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내적 예배를 기대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의 외적 예배, 다시 말하면 번제와 희생과 물로 씻는 예배 가운데로 오셔서 그들과 결합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정한 결합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희생과 번제의 제사 속에는 영적인 것이 하나도 들어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교회는 그저 교회의 표상일 뿐 진정한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그렇기에 이스라엘 교회는 결국 멸망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두 가지 의미로 쓰였다고 했는데, 그것은 여러 가지로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의미심장한 일입니다. 우리 자신이 어떠한 의미의 이스라엘 백성인지를 스스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 교회에 속한 사람인지, 아니면 단순히 교회의 표상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무엇 때문에 이 진리를 붙들고,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가 하는 것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또한 교회를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주님 앞에 자신의 내면에 있는 것을 그대로 보여드리고 고백하고, ‘여기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하기만 하면 됩니다. 다른 것은 필요 없습니다. 그때 시내 산에 오신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 안으로 강림하십니다. 주님의 그러한 은혜가 서울 새 교회의 모든 교우님들과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 몸의 등불은 눈이라 네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네 몸도 어두우리라 (눅11:34)

아멘

원본

2017-02-19(D1)

서울 새 교회 이순철 목사

설교

2023-01-10(D3)

한결같은교회 변일국 목사